

제도권 言論 「使命感」 되찾아야 한다

특별寄稿 李仁浩 (KAIST 석좌 교수)

언론이 제 4의 권력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신문이나 방송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 표현은 매우 적절하다. 하지만 권력이란 어떤 권력이라도 악용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사회 공동체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언론의 기능은 사실 혈액순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것이다. 하지만 제도권 언론이 언론의 자유 보장을 통해 그 사명을 인정받고 그 기능을 충실하게 감당해 낼 만한 내적 역량을 기르기도 전에 권력의 맛을 알게 되고, 특히 일선 기자들이나 제작진에서부터 제 멋대로 놀아나게 되면, 혈액순환의 순기능은 확산 되어가는 암세포들의 방해 받게 되고 급기야는 사회가 여론 공동체로서의 동질을 상실하는 위험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언론매체를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국가권력의 횡포는 우리 사회가 겪을 만큼 겪었고 그에 대한 대처능력도 어느 정도는 키워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그 반대 쪽에서 오는 위험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다. 대선과 총선에 승리하고도 몇몇 주요 시청각 매체들의 노골적인 편파보도 때문에 이 명백 정부는 정부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빠져들었음을 생각하면 언론기관의 권력남용도 정치인들의 권력남용의 수준을 능가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익명으로 뺑소니 식의 무책임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 갈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언어 폭력을 날기도 하는 인터넷 매체나 각종의 무가지(無價紙)들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제도권 언론이 직면하는 도전은 사방에서 온다고 볼 수 있으며 어찌 보면 이미 언론계 자체의 힘 만으로도 감당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정치권에 다시 언론의 운명을 맡기는 함정에 빠져 들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도 성급한 단언이라 생각되지만 역사 도전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안목이 언론계 내부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제도권 언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직업인으로서 언론인들을 지탱해주는 힘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매체들

의 끊임없는 도전 앞에 신문이나 방송 같은 전통적 매체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언론인이 인간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새로운 매체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전통적 매체들의 곤혹스런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은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라는 느낌이 든다. 방송, 특히 텔레비전이 등장했을 때 인쇄매체들이 느꼈던 위협도 이에 못지 않았을 것이다. 후자의 걱정은 물론 기우만이 아니었다. 독서의 기능 중 상당 부분이 각종의 시청각 매체로 대체된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문화는 없어지지 않고 살아 남았으며 없어질 기미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인쇄매체의 요체는 무엇인가. 말할



李仁浩 교수

가려 노력하기보다는 보도의 수준을 과별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꾼들이나 선정적 보도에 흥미를 느끼는 독자나 시청자들의 수준에 맞춰버리거나 심지어는 스스로가 파당적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듯한 현상이 언론이 스스로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는 증후이다. 또 다른 증후는 언론기관들이 우리 말을 지키며 발전시켜 나가는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저속한 사회적 시류와 쉽게 융합하려 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내가 직장 때문에 90년대 후반을 외국에서 지내다가 2000년 초에 귀국했을 때 신문을 보며 처음 느낀 것이 '정치'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진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정치면에 보도되는 것은 주로 각 정치 집단간의 계파 싸움이지 내가 이해하던 뜻으로의 '정치'는 아니

크고 중요한 면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줄에 서서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고 있고 어떤 추문에 휘말리고 있는가 하는 등의 것이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제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보다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각종의 스캔들이나 엽기적 사건들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판매부수 경쟁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경제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문이고 텔레비전이고 할 것 없이 주요 매체들이 여론을 주도하기 보다 여론에 융합하기에 급급하다면 설사 개별적 사안에 관해서는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로 볼 때 진정으로 필요한 의사소통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로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이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언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건실한 공론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이 인기영합의 유혹에 압도당하는 현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언어 파괴 현상이 심각하며 그 일에 언론이 앞장서고 있다는 증거는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에서 특히 선명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모럴 해저드'라는 말이 언제부터인지 '도덕적 해이'나 '도덕적 기강문란' 대신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의 원래 뜻은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을 때 모험을 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저지른 비리를 점잖게 덮어주는 말이 아니다. 마치 우리 전통에는 그런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듯 결핍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들먹이고 이상한 사건이면 모두 '게이트'라는 꼬리를 붙이려는 관행 또한 천박하기 짝이 없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편파보도 일삼는 인터넷 매체 등 도전에 대응 政治的 아젠다 등 핵심 관심사 先導해 나가야

것도 없이 문자이다. 그리고 문자 이전에 정확하고 아름다운 언어이다. 책이 없이는 언어문화에 대한 유지와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언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되지 않고서는 비판적 사유도, 공정한 보도도, 섬세한 감정의 표현이나 전달도 제대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의사 소통도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 그러한 사실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사회도 시청각 매체나 그 밖의 새로운 매체로 문자문화를 완전히 대체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며 문자의 뒷받침이 없는 언어들은 자연스레 소멸되는 현상을 역사는 무수히 목격해 왔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신문과 방송을 다 포함한 제도권 언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사실 정치권력이나 각종의 신 매체의 범람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언론계 자체가 스스로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정치를 관망하며 큰 의미에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정치의 내용과 일정(아젠다)을 선도해 나

었다. 우리 나라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치적 현안들이 어떤 것이고 그것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언론매체를 통해 가늠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인들의 핵심관심사는 권력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에는 그래도 그것은 어떤 공적 명분으로 포장이라도 하는 위선이라도 보였는데, 이제는 언론매체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위선마저 팽개치는데 앞장서는 듯하다는 것이 내 인상이었다. 신문에서

대신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 말의 원래 뜻은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을 때 모험을 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저지른 비리를 점잖게 덮어주는 말이 아니다. 마치 우리 전통에는 그런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듯 결핍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들먹이고 이상한 사건이면 모두 '게이트'라는 꼬리를 붙이려는 관행 또한 천박하기 짝이 없다.

알림 혈액 및 전립선 무료검사

12월 6일... 사전 신청받아

대한언론인회는 오는 12월 6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지원을 받아 회원들을 위한 전립선 무료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립선 무료검사에는 한국전립선학회 회장 권성원 박사, 중앙대 의료원장 김세철 박사, 한양대 의과

대 이춘용 교수, 한국성과학연구소 이윤수 박사 등이 참여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혈액을 통한 PSA 검사, 전립선 내시경 검사 등이 포함된다. 검진 참가 희망자는 전화(02-2001-7621, 732-4797)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회우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

大韓言論人會

言語 관리 제대로 해야 건실한 公論 조성된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외래어로 써야 왜인지 유식한듯 느끼는 기자들의 허영심이나 모르는 말을 모른다고 고백도 하지 못하는 독자들의 공모의 결과로 멀쩡한 우리 말이 정확하지도 못한 외래어로 대치되어 버리는 이런 어쩔수 없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책임은 언어의 유통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래어가 아닌 경우도 신조어의 남발로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에 면피를 제공하는 일에 언론이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관예우' '촌지문화' 등 점잖게 들리는 표현으로 판사출신 변호사들이나 교사·학부형간의 비리를 포장한다든가, '선행학습'이라는 말로써

학교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일인양 만들어버리는 관행이 그 예들이다. 그리고 적어도 중요한 방송 프로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멀쩡한 우리 말인 '보인다'를 두고 '보여진다'라는 말 아닌 말을 써서 우리 말을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건전한 공론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자나 제작진의 전반적인 소양 부족이나 프로의식의 결여도 심각한 문제이다. 며칠 전 KBS의 북한 관련 특집에서는 전문가로 나오는 외국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를 계속 '안드레이 교수'라고 부르는 결례를 범하는 무식을 드러냈다. '김영자 교수' 대신 '영자 교수'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다. 서양인들은 대체로 우리와 달리 이름을 성 앞에 부른다는 것이 상식이고 안드레이 정도는 매

우 흔히 알려진 서양 이름인데도 방영 전 그 특집을 검토했을 많은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송제작 태도의 신중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게 한다. 정확성에서 조금도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식의 잘못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하듯이 언론의 질이나 수준도 결국은 매체와 독자 또는 시청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지적, 도덕적,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는 1차적 책임은 언론보다는 교육에 있다 하겠지만 언론이 이 나라의 정신적 혈액순환 기능을 담당한다면 그 심장의 기능을 해야 할 제도권 언론기구의 인적 구성과 책임의식, 그리고 내

적 공지는 국민 전반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말 지킴이로서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 언론의 기능은 제 4의 권력이라는 표현이 함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언론의 사명에 대해 금지와 책임감을 동시에 느낄 줄 아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 같이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계속하여 단련시키는 일이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 제도권 언론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앞에 내세워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신문과 방송은 대한민국의 표준어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다. [4]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제 8회 한·중·일 방송프로듀서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2001년 한·일 두 나라 TV 제작자 100여명이 한·일간의 역사인식 문제를 주제로 부산~후쿠오카 페리선상에서 토론을 벌인 이벤트성 TV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2회는 "한·일 신통신사 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대마도에서 있었다.

두 번의 포럼에서 한·일 방송 프로듀서들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 벽을 부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토론을 거듭했다. 그 결과 한·일만이 아닌 역사적으로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 포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 3회에는 중국이 참여하여 "한·중·일 공동 제작과 국제화의 모색"을 주제로 제주도에서 열렸다. 3국이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이 포럼은 4회 중국의 양주, 5회 일본 동경, 6회 한국의 광주, 7회 중국 천진, 8회 후쿠오카로 이어졌다.

한·중·일 방송 포럼은 역사인식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방송제작자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제작을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 동안 세 나라는 여러 형태의 공동 제작을 해왔지만 문화의 차이와 언어소통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원활치 못했다. 그 중에서도 제작비의 차이, 연출력, 기술수준 차이가 제일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 경쟁 콘테스트'에 출품된 세 나라의 작품 수준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제작비 투입이나 제작 규모에서도 그 차이를 둘 수 없을 만큼 세 나라가 대등한 위치에 와있었다.

이번 대회의 최대 수확은 세 나라의 높은 방송 제작 수준과 세 나라의 제작 수준에 격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공동제작의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제작 수준의 차이가 없어진 만큼 앞으로 수준 높은 공동제작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후쿠오카 포럼의 주제는 "동아시아에서 더불어 살기-젊은이들은 지

금"이었다. 격차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과도한 학력사회의 문제, 그리고 중국에서는 80년 이후 세대의 젊은이들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오늘의 문제인 동시에 미래의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라고 젊은이



정 창 기

· 본회 회우
· 전 KBS 전주방송 총국장

고였지만 한·중·일 세 나라 방송의 위치와 지향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자부심으로 지난 대회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 대표는 "초월·융합·공유"라는 제목의 보고에서 마침 올해가 중국 TV탄생 50주년을 상기시키며 북경 올림픽에서

韓 · 中 · 日 TV경쟁시대

후쿠오카 프로듀서 포럼에 다녀와서

3國 기술수준 비슷해져 공동제작 활기 기대

를 포럼의 주제로 정한 의미를 일본측 대표인 오야마 씨가 설명했다.

프로그램 콘테스트에 출품한 한국의 '정글 피시(Jungle Fish)', 중국의 '분투', 일본의 'Last Friend' 등의 TV 드라마는 세 나라 젊은이들의 문제를 잘 표현한 작품이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제의식, 내용, 제작기술의 수준에서 충분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TV방송의 역사가 영국과 미국 등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세계 유통시장을 그들이 지배해 아시아는 그들의 소비시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시아도 아시아의 시각으로 아시아제작자가 제작한 TV 콘텐츠가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세계에 유통되도록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많은 포럼 참가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한·중·일 방송 제작자 포럼이 3국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공동제작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 대회 개회식에 이어 있었던 각국 방송현황 보고에서는 젊은 보

전세계 인류를 하나로 이어준 TV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또한 전세계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TV는 부단히 변화해야 하고 중국 TV의 발전뿐 아니라 전세계의 TV발전에 방송인으로서 역사적 책임과 사명감을 강조했다.

일본 대표는 "지금이야 말로, TV 문화의 재창조를"이라는 발표에서 2011년 7월에 시행되는 지상과 아날로그 방송의 중지와 지상과 TV방송의 완전 디지털화 이행에 따르는 통신과 방송의 융

합시대를 진단하면서 2008년은 일본 방송의 장래 설계가 논의되어야 할 최후의 시기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르는 기술적 논의와 산업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디지털화에 의해 TV 저널리즘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송 저널리즘, 방송문화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TV 문화의 재창조를" 강조했다.

한국 대표는 "격변의 연속이었던 한 해"를 제목으로 TV 드라마 제작비의 상승과 음악 쇼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으로 대중 음악을 선도하던 TV 프로그램의 영향력 감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 현상 등을 소개하고 DMB 핸드폰의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TV 시청의 증가, 인터넷 IPTV의 본격 서비스 등 기술 발전을 통한 방송환경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한국 방송의 최대 관심사는 방송의 공공성임을 강조하고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면서 한국 프로듀서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후쿠오카 포럼에는 한국 PD협회를 중심으로 공중과 3사와 EBS, 케이블 TV의 PD, 독립제작자협회 PD 등 35명이 참가했고, 한국측 공동 주최 단체인 한국 방송인회에서는 최창봉 이사장과 장한성 회장이 대회 고문으로 참가했으며 안평선 부회장은 프로그램 콘테스트 심사위원으로, 필자는 자문위원으로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 나라에서 120여명의 방송 제작자가 참가했다. [4]

북한산 대동문으로 초대합니다

가을단풍도 모두 지고 본격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안종우)는 올해 마지막 산행을 오는 11월 15일 토요일 북한산 대동문(해발 420m)으로 초대합니다.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08년 11월 13일 (목)
오전 10시
· 집합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광장
· 교통편 : 전철 4호선 수유역 1번 출구
(마일버스 01번 종점 하차)
· 산 행 지 : 북한산 대동문
(해발 420m 산행 2시간 소요)

· 준 비 물 : 간식, 음료수 각자 준비
· 연 락 처 : 본회 사무국 · 산악회
충무 011-443-0063
※ 산행뒤 만찬 예정

2008년 11월 1일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회장 안 종 우

미디어 간 대립 - 의견 치중 보도 문제 많다

駐韓 외국특파원들이 본 한국 언론 현주소

올 봄 아직 진달래 꽃이 화려하게 피고 있을 때, 저는 서울에 취임했다.

1999년 가을부터 4년간, 서울 특파원으로서 근무한 뒤 4년 반 만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

“이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여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변하지 않았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뀐 부분은 여러 가지 있다.

예전에는 청계천 근처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는 커플의 다정한 모습 자체를 본 적이 없었고, 전에는 적었던 맛있고 세련된 서양 요리점이나 중국 요리점이 늘어났다. 여성의 화장법도 내추럴하게 변했고, 이전에는 한눈에 알 수 있었던 일본 여성과의 차이도 이제는 거의 알 수 없게 되었다.

다이내믹 코리아의 슬로전처럼 한국은 확실하게 그리고 빠른 스피드로 변



하코다 테쓰야 (箱田哲也)

· 아사히 신문 서울 지국장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도 1면 톱 기사에 자전거를 타는 남성 모델의 그림을 게재한 신문이 있는 등 호쾌하게 지면을 만들고 있었다.

일본의 각종 신문도 생활 중시의 지면만들기에 열을 올리고는 있으나 그 대담함이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못한다. 한국 신문의 대담함에 또 놀란 것은 큰 뉴스에는 철저하게 지면을 할애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메달 러시에서 생겨난 북경올림픽의 일화에서는 전면 광고 페이지도 있었지만 1면으로부터 8면 정도까지 대부분 올림픽 관련 기사라고 할 수 있었

가 나고 있었다.

이번 서울 부임으로 생각하게된 것은 연금이나 건강, 교육 등 생활에 뿌리 내린 기사가 과거에 비해 각별히 크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만큼 건강지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전해 듣고 이미

최근 나는 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강의중 학생들에게 학생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신문을 읽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단 한 학생의 손이 올라 갔다. 다른 학생들은 마치 내가 왜 그러럼 뻔한 질문을 하는 것인가 의아심을 품은 듯 나를 쳐다 보았다.

이같은 반응은 세계의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공

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시였다. 즉 낙후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접속률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거의 모두가 교육을 받아 읽고 쓰는 한국에서도 다르지가 않다. 왜 이 글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뒤에 설명하려 한다.

내가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지는 2년이 조금 넘었다. 그러므로 ‘나의 견해’는 깊이 있는 지식이나 학문적 탐구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쁘게도 지금 살고



조나단 대처

· 로이터 통신 서울 지국장

방문했을 때 한국의 주류 미디어들이 청와대와 맞지 않는 견해를 공공연하게 보도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를 보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놀라운 일이다. 한국의 미디어가 속박에서 풀려나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하고, 언론 자유가 저해 받을 어떤 징후도 곧장 비판 받

고 있는 것은 어떤 외국 언론인들도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분명 힘든 싸움을 겪었고 마침내 승리했다.

내게 충격적인 또 다른 면이 있다. 표현의 자유가 표적 대상에 대해, 보통은 정부이지만, 로브 불을 치듯이 여론 사격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다. 그것은 사실(facts)보다 의견(opinion)과 논쟁(polemic)에 더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편집인에게 봉사하려는 것인지, 또는 공중에게 봉사하려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물론 이같은 일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일은 아니다.

생활重視 대담한 편집에 눈길 감정보다 ‘複眼的시각’ 키워야

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은 저처럼 수년간의 공백을 두고 보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 또한 많다.

독특한 유교문화 때문에 그런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옛날보다 약간 그 빈도가 적어졌는가?) 비가 내리면 수제비가 가게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지하도에는 순식간에 우산을 파는 노점상이 나타난다.

교통 매너는 결코 개선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은 짧으며 오토바이는 제 멋대로 보도를 누빈다. 그러한 가운데 크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고도 느끼는 것이 한국 미디어의 자세이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생활한 것은 1994년부터 다음 해에 걸쳐 1년간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면서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지만, 그 때 한국의 신문을 보면서 ‘일본 신문과 똑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신문의 얼굴인 1면으로부터 2-3면의 종합면과 정치, 경제, 국제와 같은 고유면에 이어지는 스타일이나 기사의 취급이 아주 많이 닮아 있었다.

1999년부터의 특파원 시절에는 각종 신문이 섹션 신문을 끼우게 되었고, 일본의 신문과는 레이아웃상으로도 차이

던 것도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일간지(종합지)에는 있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대담한 지면만들기는 오랜만에 재연한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의 문제를 둘러싸도 전개되었다.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의미로 한국 미디어가 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떠올리게 된다.

사실 여기서 이번 문제의 경위를 쓰는 지면이 아깝고, 저 섬이 어느 나라 땅이라고 여기서 주장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문제로서 미디어라면 항상 단일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안(複眼)’으로 보는 시각이 요청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현상의 형태나 크기 그 위에 겹쳐 보이는 보이지 않는 폭이나 넓이를 독자에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처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때에 일본 쪽에서부터 찬물을 끼얹었다는 기분이나, 한국에 있어서 독도문제는 역사문제라고 하는 주장도 익히 알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 이번 독도문제를 듣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갖는 생각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미디어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公衆에 봉사하려는 자세 필요 외국 미디어 차별풍토 개선을

있는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에서 언론인으로서 지내 온 지난 30년간의 생활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아시아 나라들은 서로 크게 다르다. 그러나 20세기로부터 이 아시아 지역의 저널리즘 역사를 일견하면 서구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 또는 두 개의 놀라운 유사점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한 때 식민통치 지배하에 있었던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같은 나라들에서 저널리즘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비교해 보자.

그것은 식민통치 당국의 마지못한 묵인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비밀리에 발행된 발행부수가 적은 인쇄 매체로 부터 비롯한 것이다. 이 인쇄 매체들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들의 견해를 분출하는 중요한 도관 역할을 했던 것이다. 때문에 식민 통치 시대가 끝난 초기의 아시아 국가 정치인들 가운데는 한때 언론인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이같은 사회에서 정치적 의식을 깨치는데 있어서 언론은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식민 통치를 벗어난 초기사회가 외국 통치라는 속박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남에 따라 앞서 언급한 국가들에서 신생 정부가 점차적으로 독재화되어 가고 미디어가 통치자의 도구가 되었으며 언론의 독립성이 짓밟혀져 위기에 처해지기까지 했던 것은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 내가 처음으로 한국을

그러나 이같은 것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세찬 경향이며 나 같은 국외자에게는 논쟁의 여지를 희석시키는 것 같이 보인다.

깜짝 놀랄만한 제목으로 아마도 격렬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많은 출판물들이 있다. 실제로 어떻게 생존해 나갈까 의문이 가는 출판물도 많다. 일부 언론인들과 편집인들은 광고를 끌어 들이기 위해 부정적 기사로 협박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많은 한국인들이 내게 말해 주기도 했다. 나는 이 말이 정말인지 잘 모른다. 만일 그같은 일이 있다면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힘든 투쟁을 해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세계의 놀라운 경제 발전국에서 일하고 있는 나 같은 외국 특파원을 놀라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외국 미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다. 처음 나는 이같은 현상이 정부나 회사의 말하기를 꺼리는 관리들만의 경우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일부 지방 미디어조차도 우리들과 거리를 두려는 것을 보고 의아스럽게 여겼다.

한 예를 든다. 몇 개월 전 한 주요 정부 기관이 국제회의를 앞두고 한 프레스 클럽 대표자에게 40석 가까운 프레스 룸 자리를 차지할 미디어를 지명하도록 요청했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北韓 급변대비 「5029」 제대로 준비하라



金 哲

· 본회 회우
· 국민대 초빙교수

5029(북한 내부의 급변사태 대책)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가히 몰상식의 극치이다. 正常 국가는 모두 5029 같은 것을 가졌고 지금도 갖고 있다. 다만 그 존재를 철저히 부인할 따름이다. 美國은 日·露전쟁이 끝난 뒤, 오렌지 플랜(日本 해군을 假想敵으로 간주함)을 마련했다. 언젠가는 태평양에서 日本과 충돌하리라는 가정하에 서였다. 日本만이 아니다. 독일은 블랙, 영국은 레드 플랜의 대상이었다. 전략가 '알프레드 마한'의 건의에 따랐던 것이다.

5029를 둘러싼 낱빠진 논란을 나무랄 여유가 없다. 그보다는 5029의 內包와 外延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작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국제관계의 地形과 연관시켜 완성되는 것이다. 아니 완성은 없고 수시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먼저 法的인 문제다. 북한의 급변에는 완전 무정부 상태(Entire Anarchy)와 불완전 무정부상태(Temporary Anarchy)의 두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후자는 內亂상태를 의미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토대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이 되어야

마땅하다. 우선 우리의 헌법에 입각해서(북한은 失地). 그리고 남북관계는 戰時상태(停戰)라는 데서 접근해야 한다. 평시상태를 가정한 국제법 조항과는 무관하다. 戰時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완전 무정부상태에 들어가면 개입권을 갖는다. 북한이 內亂상태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叛徒 또는 교전단체를 지원해도 내정간섭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는 아니다. 或者는 92년의 남북합의각서 2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합의각서(한반도 비핵화)를 휴지로 만든 쪽은 북한이다. 휴지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또 한반도에 2個 국가가 존재한다는 국제적 시각을 장애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統獨의 역사적 사례를 보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쪽에 있다. 美國이 군사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급변시에 군사작전을 북한지역까지 확대하느냐의 문제는 작전통제

권을 훨씬 웃도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대상이다. 2012년에 우리가 군사작전통제권을 이양 받는다고 해도 한국 단독으로 중대결심을 하기는 어렵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북한의 배후세력을 포함한 4強의 力學관계이다. 독일 통일 때와는 북한 배후세력의 상황이 다르다. 그 때는 소련이 완전 폐쇄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소련은 한 때 독일의 비무장 중립이라는 스탈린 이래의 정책

을 제시했다. 이것을 과감하게 거부한 사람이 아버지 부시였다. 그는 역사적 예를 들어 중립 독일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 고르비를 설득했다. 때문에 통일 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이 소련의 안전에도 긴요하다고 설득했다. 같은 우려를 하는 英·佛도 그렇게 설득했다. 이 점은 당시 실무진이었던 필립 켈리코와 라이스 국무장관의 共著 <統獨과 유럽의 변화>에 자세히 기술돼 있다.

그러나 東北亞는 다르다. 중국은 旭日昇天이고, 러시아는 회복됐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호적인 북한정권으로 완성될 것이다. 황장엽씨의 견해도 그렇다. 미국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코앞까지 나토를 확장 중이다. 그루지아 사태도 그 여파다. 그러나 미국이 이 곳에서 그런 '모험'을 하리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中·러 두 나라와 마주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문제는 자위권이다. 북한은 핵과 다량의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다. 당연히 관리문제가 발생한다. 북한

의 난민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러시아 심지어는 일본까지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을 포함한 5者가 자위권 발동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나설 것이다. 5자 중 특히 日·中·러가 자위권을 주장하게 될 때 한국의 입지는 형편 없이 왜소해질 것이고 미국은 고민에 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해야 할 과제가 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통일 한국의 국가적 방향을 마련한 뒤 이를 관계국과 극비리에 조율해야 한다. 물론 국가적 正統性 확립이 先決이다.

19세기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과 통일유지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비스마르크는 먼저 통일의 반대세력인 오스트리아, 그리고 통일의 견제세력인 프랑스를 전쟁으로 굴복시켰다. 그러나 통일 뒤에는 현상유지 정책으로 일관했다. 즉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프랑스와 러시아간의 접근차단(유명한 재보장 조약)을 기했다. 비스마르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상황은 물론 다르다. 그러나 반강정 같은 '전략적 동반관계'나 사방에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응골찬 계획을 세우고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4]

하코다 테쓰야 <3면에서 이어집니다>

5월부터 서울 중심부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도 미디어 관계자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국민이 반발하고 행동한 것은 국민의 생활이나 건강과 직결하는 문제가 단서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대규모 신문사와 인터넷 미디어와의 대립 구조가 부각된 점이다. 일본에서도 사이버공간에서 기존 미디어는 엄격한 비판에 노출되는 점이 있다. 일본에서의

게시판 등의 댓글은 민족주의적이고 우익적인 의견이 눈에 띄는 반면, 한국에서는 진보계의 색조가 강하게 나온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기존 미디어대 인터넷 미디어의 이념대립 뿌리는 일본과 비교가 안될 만큼 깊다.

왜 그런 것일까?

한국에서는 지금 여배우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단속 강화를 위한 법정비를 서두르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한·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익명에 의한 근거 없는 댓글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댓글은 정보를 얻는

측도 큰 신뢰를 두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가 많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서 불거진 인터넷이나 문자 메일을 통한 '괴담'이 전개된 것과 같은 것이 통하는 일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촛불집회 후반에서는 과격한 일부 사람들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 한국을 대표하는 신문사 사옥의 일부를 파괴하는 행위에 나섰다. 이것은 이미 미디어의 대립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은 단순한 범죄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쪽에서 우리들 기존미디어

는 왜 사이버 공간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인지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론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결코 연합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쌓아 올려가면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해 나간다.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싸워야 되지만 우리들과 같은 기존미디어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한번 더 원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4]

조나단 대처 <3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단 한 자리도 외국 미디어 회원들에게 할당되지 않았다. 그 일이 일어나자, 새 정부 관리는 운영체계를 바꾸어 먼저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 프레스 룸 자리가 돌아가게 했다.

그것은 훨씬 공정한 방안으로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외국 미디어들이 외부 세계에 한국의 중요한 발전들을

말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왜 외국 뉴스 기관들이 한국의 신문들에 직접 뉴스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아직도 있는지 묻고 싶다.

결론적으로 나는 수십년간 오늘의 한국 언론이 있기까지 분투해온 한국의 미디어와 그 편집인들을 진심으로 찬양한다.

한국 언론의 오늘이 있기까지 것처럼 거친 투쟁을 해온 사회는 많지 않다. 나는 미디어 환경이 더욱 개방되어 외국 미디어도 특별 대우가 아니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욱 끈끈하게 어울려 나가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세계를 위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날 군사 통치나 민주 통치에서 그랬듯이 항상 새로운 도전에 만반의 태세를 갖춘 좀 더 개방된 미디어 산업이, 우리가 함께 자라오고 전문직을 바쳐온 전통 미디어 뉴스에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대한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참 언론인’을 찾습니다. ‘08년 大韓言論賞 공모… 12월 15일 시상

大韓言論人會는 언론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08년도 대한언론상 수상 대상자를 공모한다.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선정 대상자를 접수, 12월초 시상자를 확정한다. 시상식은 12월 15일(월) '송년의 밤' 행사 때 갖는다. 심사대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발표된 내용이다. 분야는 보도, 논평 및 언론학술연구 등이며,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응모 요령

- 분 야 : 보도, 논평, 언론학술연구
- 대 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07년 11월 1일 ~ 2008년 10월 30일
- 구비서류 : 이력서, 사진 2장(명함판), 공적자료 1부
- 접수마감 : 2008년 11월 15일 오후 5시
- 시 상 : 2008년 12월 15일
- 접 수 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2001-7621, 02-732-4797

신문시평



이 병 국

· 본회 회우
· 전 한국경제 부국장
· 한서대 대우교수

‘자라에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다’는 속담처럼 가슴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가위눌려 지낸 10월 한 달이었다. 미국의 ‘금융 위기’ 사태가 신문과 방송 등 매스컴을 온통 장식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언론에 터져 나왔던 ‘9월 위기설’을 가까스로 넘기며 안도의 숨을 돌렸던 우리들에게 ‘미국발’ 금융대란은 지난 97년의 ‘IMF 구제금융’의 재앙을 다시 연상시킬 충격적인 뉴스였다.

신문들은 1면 톱, 해설 그리고 사실 등을 통해 이 엄청난 소식과 함께 우리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도했다. 언론들은 이 금융위기가 미국 정부의 금융위기에 적절한 처방을 내는데 실패했다는 분석과 함께 우리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직접 제공하고 은행의 외화 채무에 지급을 보증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다각도로 보도하고 있다.

이같은 미증유의 위기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돌아 보게 한다. 사태의 본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이해보다는 엉뚱하게 ‘언론이 돌을 맞는 경우’를 흔히 경험했다. 언론의 과장 보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고전적인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안보산업주의에 매몰’되었거나 또는 ‘이데올로기에 집착된’ 보

및 심리적 불안감의 증폭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주목을 끌고 있다.

신문 사설도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 분석보다는 우리 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성 분석과 대처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많은 지적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고 거들 밝히는데도 시장은 곧이듣지 않는다’(경향신문, 4일), ‘시장불안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신뢰 상실에서 비롯됐다’(중앙일보, 7일), ‘위기를 헤쳐 갈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동아일보, 8일) 등이다. 반면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 혼돈상태를 경제체제에서 찾는 사실도 보인다. ‘미국이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는 진원지가 되자 무책임한 행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다’(한겨레, 1일),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경향신문, 8일)는 지적이 그 예이다.

때마침 해외언론도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권위지들이 ‘4,000억 달러의 외채’, ‘유동성 문제’ 등 나름대로 보다 구체적인 팩트

방송시평



호 천 응

· 본회 회우
· KBS남북의 창 부장
· 신성대 교수

토론 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던 시절 TV를 시청하면서 울화통이 터질 때가 많았다. 특히 TV 토론에서 억지 요설을 청산유수로 쏟아내는 토론자의 따귀라도 울려 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기도 했다. 참 말들은 잘 한다. 끝어다 붙이고 물고 늘어지는가 하면 교묘하게 짜깁기하면서 시청자를, 아니 국민을 우롱하는 재주들이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상대의 말은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 주장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토론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집과 흑백논리, 양자택일의 극단주의에 빠져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 한 케이블 TV에서 이른바 토론 쇼를 표방한다며 방영한 ‘백지연의 끝장 토론’을 일부 시청자들은 버라이어티 보다 흥미진진한 ‘쇼’라고 반응했지만 방영은 물론이고 제작해서도 안 될 프로그램이었다. 양쪽으로 갈라진 패널과 방청객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면서 터무니없는 말로 자기편만을 감싸는 모습은 영락없는 편싸움에 다름 아니었고 이를 시청하는 국민은 편싸움 구경에 정신을 잃는 형국이었다.

없었다.

그러다 보니 방송 중에 터져 나오는 ABCP나 ABS같은 전문 용어에 대해서는 자막으로 설명을 하려 했으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쉽지 않은 말들이었다. 어느 대목에서는 사회자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었다. 토론의 주제가 극명하지 않으니 극단적인 말싸움이나 상대를 대놓고 폄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으나 재미는 없는 프로그램이었고 심야에 어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부동산 어디까지 떨어지나”라는 자막이 수시로 나타났고 <부동산 대폭락 시대 온다>라는 책의 저자라는 패널은 자기의 주장이 맞고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라는 강변을 되풀이해서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출연하지 않아서인지 상호 비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다.

10월 18일 EBS의 ‘토론광장’은 주제가 “조기 유학의 득과 실”로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과 주장을 펴는 토론 프로그램의 진면목을 보여준 훌륭한 기획이었고 제작이었다.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금융위기 정부 대처방안 집중보도 균형감-차분한 자세 중요성 일깨워

도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몰아가기식 보도가 적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을 포함한 미국발 금융위기 뉴스는 당연히 ‘톱 감’이었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분석기간 중 이 뉴스를 가장 많이 1면 톱으로 올린 것은 서울신문으로 11건이었으며, 다음은 조선일보 8건, 중앙일보 7건의 순이었고,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는 각각 6건으로 다른 어떤 뉴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톱뉴스는 주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될 가능성이나 은행의 외화 빚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에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파산직면 아이슬란드, 시장 무한 개방의 실패’(경향신문, 20일), ‘막힌 경제 청신호(청와대 리더십, 신뢰회복, 호응 동참)’가 필요하다’(동아일보, 8일), ‘외신 연일 한국위기 부각, 경제전문가 선부른 판단’(서울신문, 18일), ‘지나친 위기의식이 더 큰 위기 만든다’(조선일보, 8일), ‘공포에 질렸다’(중앙일보, 17일), ‘경제 한파 맨몸 방어...중기 13% 폐업고려’(한겨레, 6일) 등의 보도는 전면 개방경제의 반성, 리더십

를 제시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외신들의 보도가 팩트를 잘못 인용하거나 선입견에 의한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전 외환위기를 빠져리게 느꼈던 일반 국민들의 처지에서는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외면하고 정부의 입장을 무조건 따르고 믿기란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외신보도를 ‘오보’라고 일축하기에 앞서 내외신 모두에 우리의 경제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본다.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차분하고 균형 있는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정부도 금융기관에 직접 달러를 공급하고 외화 차입에 정부가 보증하는 등의 시장 안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사설들은 우리 나라를 포함, 각국 정부가 저마다의 대중요법식 처방만으로는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야’(조선일보, 6일), ‘한국·중국·일본 3개국과 아세안 각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역내의 위기대응 공조체제 시급’(중앙일보, 6일) 등을 들 수 있다. [4]

편싸움 방불케하는 TV토론프로 공중과 중심 달라지는 모습 보여

10월 셋째주 공중과 방송들의 TV토론을 지켜봤다. TV 토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다

10월 16일 목요일에 방영된 ‘MBC의 백분토론’은 주제가 “금융위기 확대인가 안정인가?”였다.

여·야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등 모두 6명의 경제 전문가가 패널로 출연한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 대해 전문 지식을 펼치면서 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이런 문제는 공중과 방송에서 떠들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힘 쓸 일은 아니며 토론의 주제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물경제의 침체 상황을 우려하면서 시장의 신뢰 확보와 심리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패널들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더욱 TV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능력도 없으면서 금융위기에 실물경제 파국이니 바닥칠 부동산 시장이니 등을 떠들며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월 17일 금요일에 방영된 SBS의 ‘토론 시시비비’도 “부동산 폭락사태 오나?”로서, 토론의 주제로는 부적절해 보였다. 4명의 전문가 패널은 열심히 자기들의 전문지식과 통계자료를 들이대지만 과연 저 말을 시청자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시청할 수 있었다.

10월 19일 KBS의 ‘심야토론’은 “국정감사 잘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여·야 국회의원, 대학교수 2명, 언론인 2명 등 6명이 패널로 출연해서 차분하게 자기 생각과 소신을 펼쳤다. 그러나 패널들의 성향을 보면 여당 쪽이 3명 야당 쪽이 3명으로 3대 3의 팽팽한 대결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출연하다 보니 본병이 도져 정책감각이나 정치국감이나를 비롯해서 피감기관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느니 증인들의 인격 모독적 고함 등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흑백 싸움을 벌일 것 같은 네 탓 일변도의 기미가 보이기도 했고, 우리 당은 천사이고 너의 당은 구더기라는 식의 자기 고집의 감싸가 감지되기도 했으나 과거 토론에서 보였던 것 같은 과격한 표현이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거의 없었다.

사회자의 노련한 진행은 여·야 의원들의 자기반성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고 부실한 국정감사 문제가 왜 되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에 이어, 어떻게 해서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깊이 있게 나와서 사회자가 자평한 대로 “생산성을 보인 토론”으로 인정받을 만한 프로그램이었다. 10월 셋째주 공중과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은 막말과 상대 헐뜯기는 줄었으나 토론에 적절치 못한 주제의 선정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하겠다. [4]

알림 새 수첩용 ‘주소, 전화 변경’ 연락 바랍니다

본회 2009년도 새 회원 수첩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소, 전화, 경력 등의 변화가 있으신 회원들께서는 송년회 전까지 (12월 15일)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2001-7621, 02-732-4797

www.hankooki.com

치우치지 않습니다.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1954년 창간 때부터 지금까지
불편부당(不偏不黨)의 공정한 자세를 한결같이 지켜왔습니다.

6월 촛불시위 당시 신문 헤드라인

A.B.C신문(보수)

- '전대환 깃발 등장... 붉은 손수건 두르고 철동통임'
- '김위에 시위대'
- '경천 강력팀 반정부지 역류... 시위대 "법이 커졌다, 지금"'

D.E신문(진보)

- '조·중·동 삼권 부추기고, 정부여당, 끌려 다니고'
- '끝내 촛불민심 외면'
- '방송장악 저지' 촛불이 나섰다'

한국일보

- '외눈박이 저널리즘도 사태 악화 부추킨다'
- '최고기 협상타결 100% 만족은 아니지만... 정부도 촛불도 할만큼 했다'

YS-昌 파국 경위 등 정계 秘話 첫 공개

신경식 회우 '7부 능선엔 적이 없다' 단행본 펴내

신경식(辛敬植·본회회우) 전 한나라당 의원이 4선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7부 능선엔 적이 없다>란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정일권 전 국회의장,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 거물 정객들의 비서실장만 5번을 역임한 신경식 회우는 평소의 원만한 성격을 반영하듯 정계에서도 7부능선 이상을 오르지 않아 저격의 대상이 안되었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기도 하다. 대한일보 정치부장을 끝으로 10년간의 언론계 생활을 접고 정계에 투신한 신 전 의원은 20여년에 걸친 정치 여정에서 정무장관, 한나라당 사무총장 국회문화체육위원장 등 행정, 입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도 모나지 않고 털털한 성품으로 여·야 어느쪽으로부터도 호감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10년간의 정치부

기사를 통해 그가 남긴 일화와 특종은 아마도 보통 기자의 몇배에 달하리라. 뛰어난 포커 솜씨로 동료들의 손지를 짝 쓸이 하면서도 항상 그 주변은 동료들로 시끌벅적했다. 이 책의 전반을 차지한 언론계에서의 일화는 그 때, 그 시절의 수록. 후반은 정계의 일화. 특히 이회창 총리의 사퇴전말, 강영훈 총리의 임명 비화 등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YS 정부 때인 1994년 이회창 총리의 사퇴 전말은 흥미롭다.

신 전 의원은 회고록에서 “청와대에 올라오는 보고에 의하면 이 총리가 김 대통령과 독대한 장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단독으로 받는 것이 관례인 안기부장 정세보고도, 대통령이 외유 중일 때 총리가 안기부장

에게 업무 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청와대가 통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 총리가 “안건은 총리 승인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파국을 맞았다. YS는 이 총리를 불러 “지금 당장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호통을 쳤고, 그 소리가 비서실에까지 들렸다고 한다. 이 총리는 청와대에서 나온 뒤 바로 사표를 보냈다.

신 전 의원은 “청와대에서 경질을 발표하기 전 이 총리는 ‘사표를 내버렸다’고 언론에 밝혔고, 지금도 해임이었는지 소신이었는지 양쪽의 말이 다르다”고 전했다.

일순간 총리가 뒤바뀐 사연도 눈길을 끈다.

1988년 12월 초 민정당 원내총무이던 김운환 전 의원은 국회 운영 사황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청와대



에 갔다. 보고를 하기 직전 노 전 대통령은 인터폰을 통해 비서실에 “아직도 연락이 안 되었나?”라고 물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를 바꾸기로 했다. 최경록 장군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최 장군도 좋지 만 강영훈 장군은 어떻습니까”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강 장군? 음, 그분도 좋지”라고 답변하고 잠시 후 인터폰을 통해 “최경록 장군 찾지 마라. 됐어”라고 지시했다. 결국 노태우 정부 2기 총리는 강영훈 씨로 결정됐다고 신 전 의원은 밝혔다.

출판기념회는 11월 19일 오후 5시에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룸에서 열린다. [B]

회우들이 펴낸 新刊

황원갑 회우 '한국사 여결열전'

황원갑 회우가 우리 민족사, 여성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여결들의 비참한 삶을 조명한 '한국사 여결열전'을 펴냈다. 이 책은 국조 단군왕검의 어머니인 웅녀부터 명성황후까지 우리 역사를 빛낸 국모와 여결 27명의 일대기를 시대순으로 기술한 통사적 열전이다.

소설처럼 재미있고 박진감 넘치는 문장의 역사 대중서로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중견소설가이며 역사연구가인 황원갑(黃源甲) 회우가 저술한 <한국사 여결열전>은 재미있는 일화를 많이 곁들여 누구나 읽기 쉽게 쓰였으며, 저자가 30여 년 동안 작가와 언론인으로서 역사의 현장을 발로 누빈 취재를 바탕으로 집필하여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저자가 머릿말을 통해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수천 년간 남성 중심으로 이어져 온 역사 속에서도 남성에 못지않게 눈부

신 활약으로 민족사를 빛낸 걸출한 여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되짚어보고, 이 여결들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재조명한다. 무엇보다 이 책 <한국사 여결열전>은 사서의 기록과 사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거기에 저자의 작가적 상상력을 보태어 역음으로써 마치 잘 짜여진 단편소설 한편씩을 읽는 듯한 재미를 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특히 남자가 무시하거나 놓치고 있었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교훈을 자각시켜 주기도 한다.

〈신국판 624쪽 값 23,000원 도서출판 바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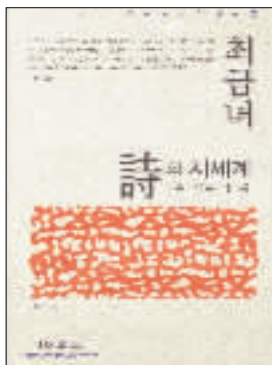
최금녀 회우 선집 '시와 시세계'

박제천 시인이 엮은 최금녀 회우의 시선집 <최금녀 시와 시세계>가 문학아카데미 한국시문학선집 제 9권으로 발간되었다. 강우식 시인의 총설 '최금녀 시인의 시정신'을 비롯해 각종 문예지, 간행시집에서 최금녀 시에 대한 시인론, 작품론을 집필한 김종길, 문호치, 홍신선, 박제천, 채수영, 유창근, 장석주, 반경환, 이승하, 고명수, 유성호, 정일근, 황정산, 이재무, 유정씨 등 시인 평론가 28명의 평설을 실었다. 이와 아울러 평설에 거론된 작품 중 72편을 가려 뽑아 수록하였다. <최금녀 시와 시세계>는 제 1부 '총설', 제 2부 '시선-시집 『큐피드의 화살』 및 근작시', 제 3부 '시선-시집 『저 분홍빛 손들』 및 초기시', 제 4부 '시집 『큐피드의 화살』시세계', 제 5부 '시집 『저 분홍빛 손들』 및 시세계', 제 6부 '초기 시의 시세계' 등 6부로 엮여졌다.

문학 아카데미 대표인 박제천 시인은

'편자의 말'에서 "최금녀 시의 두 축은 불과 물의 시학이라 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축적되는 시인의 감성을 문화구로 삼아 마치 마그마처럼 솟아오르는 불 물로 작품을 구워내는 불의 미학을 연출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노자가 말하듯이 도도하게 우리 삶을 흘러가는 대하의 물길을 따라 낮은 곳으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상선약수의 세계를 작품화하고 있다. 그 불과 물의 시학을 한몸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지난한 고통이겠지만 그것이 또한 예술가의 희열이기도 하다"고 쓰고 있다.

〈B5판 360쪽 값 15,000원 문학아카데미〉



안광식 회우 '한국 언론과 투표행태 연구'

안광식 회우가 <한국 언론과 투표행태 연구-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를 펴냈다. 이 책은 관훈클럽 신영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출간됐다.

이 책에서의 연구는 대통령 선거 때 매스 미디어가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규명, 정립해 보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 정치적 정보원, 정치적 관심도, 투표 결정 시기, 정치적 의견 형성 채널, 대인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상황, TV 연설·경력방송·TV 정치광고 등의 영향, 이미지 형성과 이슈 인지,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채널 등과 관련하여 정치 커뮤니케이션 또는 선거 커뮤니케이션의 정형화된 “기본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선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하여 대중매체 중에서도 신문과 방송의 영향이 무엇인가에 연구 내용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나라에서 커뮤니케이션과 투표 행태와의 정형이 무엇인가에 관한 기초적 이론의 틀을 제시하였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 행태 조사 연구에 앞서 논술한 '커뮤니케이션과 투표행태 연구의 이론적 고찰'에서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배경 및 고전적 이론을 포함하여 투표행태 연구의 각종 이론을 정리, 집약해 놓았다.

〈국판 230쪽 값 14,000원 파워북〉



이용호 회우 시화집 '노랑꽃 개나리'

이용호 회우가 최종태 화백의 그림과 함께 시화집 <노랑꽃 개나리>를 펴냈다. 처음 쓴 '한글자음(두음)詩'란 부제를 단 이 책은 한글 자음(14자)을 시의 각 줄마다 첫날말 첫소리에 'ㄱ, ㄴ, ㄷ, ㄹ, ㅁ, ...'의 당소리를 붙여 읊었다. "한글 자음과 인연을 맺은 발상과 기교가 놀랍다"고 한글 학자인 정재도 회우는 권두언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학술원 회원인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차원 구축의 논리와 실제'란 평론에서 "이용호 시인은 그 나름 대로 매우 독특한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작품 부제 자리에 한글 자음 'ㄱ-ㅎ'의 표시를 붙여 두운으로 사용한 작품을 내놓은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 특이한 시도에 일단은 주목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컬럼부스의 달걀에서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질 것이다. ... 이용호의 이번 자음을 이용한 시조 제작은 범박

하게 보면 형태상 실험을 통한 개혁 운동이다"고 밝히고 있다.

최종태 화백은 "그림이 시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쓰는 한 친구를 위해 내가 마음을 바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시와 그림은 무언가 많이 닮아있는 것 같고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어도 어떤 무형의 공간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고 있다.

〈157쪽 값 25,000원 동광문화사〉



老化와 화해... 불꽃같은 情熱로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4>

회우초대석

尹 胄 榮

·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 전 문화공보부장관 국회의원
· 사진작가

인터뷰 / 이규섭(본보 편집위원·칼럼리스트)

사진은 발로 뛰는 현장 예술이다.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메고 국내외 오지를 누비는 작업은 젊은이들도 힘들고 버겁다. 사진작가 尹胄榮의 불꽃같은 열정은 8旬에도 찬란하게 타오른다. 그는 사진으로 시대를 기록하는 ‘영원한 기자’이자 ‘죽지 않는 노병’이다. 지난 10월 20일 ‘50인-우리 시대를 이끌어온 사람들’ 사진전이 열리는 전시장에서 만났다. 윤주영 사진의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며 건강관리 비결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역사의 큰 획 그은 시대의 표정

서울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 들어서니 윤주영 대한언론인회 원로 회우가 후덕하고 푸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반긴다. 성근 백발에 화색이 감도는 얼굴로 악수하는 손아귀에 힘이 실린다.

윤 원로회우는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 조선일보 편집국장, 칠레 대사, 청와대 대변인, 문화공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쳤다. “언론인으로 세상을 바라본 시각이 카메라 앵글과 같아 ‘제2의 인생’에 밀거름이 됐다”고 말한다.

우리 시대를 이끌어온 지식인과 문화예술인, 군인 등 50인의 흑백사진은 잔잔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로 다가온다. 99세의 작곡가 김성태 옹을 비롯하여 96세의 송방용 전 헌정회장, 통일버로 녹색혁명을 일으킨 육종학자 허문회, ‘鐵의 사나이’ 박태준, 전 駐越軍司令官 채명신 장군 등의 주름진 얼굴에 격동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방송이 좋으면 나라가 흥하고, 방송이 나쁘면 나라가 병든다”(방송인 최창봉·본회 명예회우), “기자는 멋진 직업이 아니다.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아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피를 말리며 마감시간과 싸우고, 자신의 판단에 홀로 책임을 지는 두려움을 견뎌야 한다”(장명수 한국일보 고문), “돌아켜보면 김매듯이 살아왔다. 호미자루 내던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후비적후비적 김매기를 멈추지 않았다.”(소설가 박완서), 애절한 노래 속에 우리네 삶의 진실이 들어있다.”(가수 이미지) 보석처럼 빛나는 어록마다 치열한 삶이 녹아 있다.

- ‘50인전’ 기획의도는 무엇인지요?

“우리 시대를 이끌어 온 50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겪은 역사를 재조명해 보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인물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저 자신이 인선을 하여 몇몇 분들에게 조언을 받아 보완하고 또 보충했지요. 기획의도를 설명하는 서신과 함께 모시고자 하는 분들의 이름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동봉한 엽서로 가부를 통지해 주신 분들은 극소수여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부탁을 드렸지요.

-인물 선정의 객관성 등 결집률은?

“우선 정치인과 종교인, 원로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들은 배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들 위주로 선정했지만 인원이 한정되어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아쉽습니다.”

-준비기간이 짧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무리라는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경솔하게 촬영을 시작한 것을 뉘우치기도 했지요. 그러자 촬영은 3개월 안에 마쳤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50인전’에 출품된 방송인 최창봉씨 사진 앞에선 윤주영 회우.

젊은이도 무거운 카메라 장비 메고 국내외 오지 누벼 喪妻충격-암수술 딛고 시대정신 남기려 사진에 ‘올인’

어록과 약력도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표현은 없었는지 걱정되고요.”

‘휴머니즘 다큐사진’ 새 지평 열어

윤 대선배께서는 말씀을 낮추라고 해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존칭어로 또박 또박 답변한다. 은퇴 후 50대에 카메라를 들고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한 다큐 사진을 촬영, ‘휴머니즘 다큐 사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년 동안 16권의 사진집을 냈고, 28차례 개인전을 열어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작업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요?

“네팔에서 주검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들로 1990년 일본의 이나노부오(伊奈信男)상을 수상한 것이지요. 2년 이내에 전시회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일제시대 사할린탄광으로 끌려가 5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을 촬영한 ‘동토의 민들레’로 현대사진문화상도 받는 과분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의 사진은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요?

“사할린 동포들은 모진 노동에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팔뚝이 잘려나간 비참한 물골이지만 망향의 꿈은 버리지 못한 채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지요. 패전 후 일본인만을 귀국시켰던 일본 정부가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남겨진 조선인에 대한 귀국조치와 보상 문제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촉발제가 됐지요. 당시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한 페이지



전시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하는 윤주영 회우(왼쪽).

지 특집으로 다루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피소드 한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남미 취재 때 고도가 너무 높아 호흡이 곤란하여 고통을 겪었어요. 그 곳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혼을 빼앗긴다’며 돌팔매질을 하며 접근을 막았어요. 끈질기게 설득하여 촬영을 마무리했지요. 마음을 열고 우호적으로 대하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인간사이에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진 생명력은 시대 정신

-윤주영 사진의 일관된 주제는 ‘탄광촌 사람들’, 삶의 질곡을 온몸으로 헤쳐온 ‘어머니’ 등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사진은 카메라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와 자연을 기록하고 보도하며 해석하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의 중심은 인간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컬러화 시대에 흑백사진만을 고집하는 까닭은?

“다큐사진의 메시지 전달은 흑백이 순수하고 강렬하기 때문이죠. 컬러는 산만하여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진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윤주영 사진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록을 중시합니다. 시대 정신에 입각한 기록이지요. 모든 예술은 정신이 있어야 살아 있는 것이 됩니다. 정신은 곧 철학이에요. 이것은 왜 사진을 찍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산다

목적 의식이 있어야 행위에 대한 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시대 정신을 담은 기록을 남기려 함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넘길 수 없는 일들을 고발하고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그가 찍은 사진은 예술성 짙은 미학적 서정이 아니라 기교나 수식이 배제된 삶의 서정이자 시대의 기록으로 사람냄새가 짙게 묻어난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사람들이 보는 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상에게 정직하게 다가가는 것이 윤주영 사진이 명작으로 남는 생명력이다.

-다음 기획은 무엇인지요?

“우리 나라 최북단 마을부터 최남단 마을까지 국토를 종단하면서 그 길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내 생의 마지막 작업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후배 기자와 대한언론인회 운영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죠?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려면 기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요. 무엇보다 뚜렷한 가치관이 확립돼야 하고 인간적인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대한언론인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회우 동정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합니다.”

‘지적인 생활’ 습관화해야

-사진은 발로 뛰는 예술장르입니다. 체력이 뒷받침 안되면 힘드실 텐데요?

“3년 전 해마다 받던 정기검진에서 폐암 진단이 나왔어요. 초기에 발견하여 절개 수술을 받아 결과가 좋아 다행입니다. 한 때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가 있었지만 극복했고, 요즘은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별탈 없이 살았던 것은 ‘타고난 건강체질’이라고 말한다. 유년기에 고향인 경기도 파주 장단에서 개성까지 자전거로 통학하며 생긴 다리의 근력과 지난 2003년 작고한 부인 권옥순 여사의 내조를 꼽았다. 1953년 중매로 만나 결혼한 권 여사는 윤 선생보다 한 살 아래로 의사였다.

“만병은 마음에서 온다더니 건강에 이상신호를 처음 느낀 것은 집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후 찾아온 불면증이었지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1주를 치른 뒤 얼마 안 있어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담배는 사진 촬영을 시작하면서 끊었으나 불어난 체중 조절은 못했다며 웃는다. 술은 두주불사형이었으나 요즘은 소주 반병이면 족하다고 한다. 아침은 샐러드, 고구마 등 채식 위주로 소식을 하고, 점심과 저녁식사는 메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2남1녀 중 장남 원섭(54)씨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둘째 아들 기섭(52)씨는 무역업을 경영한다. 서울대 미대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서 조경학 박사학위를 받은 셋째 딸 미혜(51)씨는 뉴욕 조경설치회사에 다닌다. 부인 타계 후 윤 선생은 아파트에 혼자 산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둘째 며느리가 자주 들르고 가정부가 반찬 등을 챙겨주고 간다. 지방 촬영

살며 생각하며

혹시 ‘地空禪師’라는 호칭 들어보셨나요? 언뜻 듣기엔 제법 근사한 호칭 같습니다. 왜냐하면 ‘地’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비롯한 만물의 모태인데다 ‘空’은 부처님의 눈으로 본 세상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禪師’란 한글사전에 ‘禪法에 통달한 법사’(zen master) 혹은 ‘높은 道를 쌓은 스님을 높여 일컫는 말’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한(?)호칭으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만 무려 450만명을 웃돈다고 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짐작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공선사’란 그 語彙에서 풍기는 위엄있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공선사’란 다른아닌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경로석에 눈감고 참선하듯 앉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공선사’가 함축하는 의미는 애시당초 ‘위엄’이나 ‘존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이상 이상이 되면 지하철 무임승차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날 산업현장을 비롯한 각자의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해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데 대한 보상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이 나라의 노인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4대 광역시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혜택을 누려온 많은 노인들은 그동안 고마운 마음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며 이 나라 국민들이 이만큼 살게 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껴온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지공族’들의 마음에 일말의 불안감을 던져주는 사안들이 빈발해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습니다. 잇을 만하면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습이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그 주원인이 노인들의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종주먹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면서부터는 지하철 무임승차할 때 마다 가뜰이나 어려운 이 나라의 경제를 거덜내는 주역이 된게 아닌가 하는 자괴심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지하철 적자의 주요인이 65세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당국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경제학에도 이른바 ‘무임승차(free ride)이론’이라는게 있는데, 이를 비시

때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오히려 취재 때는 둘째 아들 회사의 승용차를 지원 받는다. 요즘은 사진작가 지망생인 김동희 조수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귀띔.

마지막으로 노후 건강관리 비결을 여쭙 보았다.

“어차피 노후는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하며 ‘노후의 건

地空禪師의 행차



노재승

- 전 대한일보 기자
- 전 내외경제 편집국장, 논설 위원

장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공族’에 적용할만한 것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전체인구 가운데 65세이상 노령인구가 지난 1955년에는 3.3%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엔 무려 9.9%로 폭증했다는 것입니다. 국민 10명중 1명은 65

지하철 적자운영 ‘主犯’ 지목 억울 老人다운 금도로 ‘혜택’ 지켜가자

세 이상으로 ‘지공族’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지하철을 타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령인구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적자폭이 확대 일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한 전체 승객 731만명 가운데 30.5%인 226만명이 무임승차 승객이었고, 지난해엔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무려 3억5백78만5천여명이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했다는 통계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지난해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비용이 3천80억원에 달했고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내년엔 3천7백91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세하고도 친절한(?) 통계수치를 접하고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손실비용의 경우만 보아도 3억5백여만명의 연인원이 지하철을 타지 않았을때 발생할 수있는 이익이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몽땅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주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 대상자가 타지 않더라도 지하철은 운행토

록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운행하는 지하철이라고 해도 무임승차로 인해 얼마간의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 안내고 타는 무임승차 인원의 종량만큼 에너지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차내를 비롯한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의 보수유지비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안내고 타는 무임승차 노인들 때문에 돈 내고 타는 젊은이들이 겪는 불편함을 돈으로 환산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무임승차 노인들 중에는 복잡한 차내에서 끼칠 수 있는 ‘민폐’를 염려해 젊은이 앞에 서있는 것이 폐가될 것 같아 출입구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공族’ 4년차인 필자가 보기에도 지하철 안팎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은 많습니다. 늙음이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양 매표창구 앞에서 표 내놓으라고 호통치는가하면 젊은이들에게 자리양보를 강요하기도 하고 별 볼일이 있을 것 같지않은 노인들이 때로 몰려다니며 환호작약하는 모습도 보기좋은지는 않습니다. ‘지공族’들이 가뜰이나 폭증하는 지하철 적자의 주범으로 몰리는 판국에 최근엔

노령인구의 분별없는 행차를 억제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몇달전부터 수도권 전철 일부역에서는 노인용 무임승차권도 자동판매기에 주민증을 갖다 대야만 튀어나오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창구직원 앞에서 노인다운 관상을 선보여야 했지만 이제 주민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이전에도 불법 무임승차를 자행하는 사이비노인이 많아 지하철 적자폭 확대에 큰 몫을 했다는데 주민증 제도에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주민증을 갖고나가 승차권을 뽑아내 무임승차를 자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찌됐던 요즘 돌아가는 여러정황으로 보아 노령인구의 ‘地空禪師’자리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지하철 행차는 꼭 필요한 때에 국한하고 차안 밖에서는 노인 다운 금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애써 가꿔온 이 나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할 망정 이미 누리고 있는 작은 혜택마저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4]

강철학’ 세 가지를 들려준다.

첫째 ‘아름다운 노화’다. “노인병인 중풍이나 치매 등에 대한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절대로 老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다.

두 번째는 ‘노화의 속도 지연’. 산책이나 맨손체조 등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서, 여행 등 ‘지적인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 윤 선생

은 아침에 일어나 40분 정도 공원을 산책하고 틈틈이 책을 읽는다.

세 번째는 ‘노화와 의 화해’다. “노화를 인정하고 즐겁게 받아들이야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강조한다. 지난 날의 화려한 경력을 훌훌 털어버리고 사진예술에 제 2의 인생을 걸고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카메라 앵글을 맞추는 윤주영 선생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실버다. [4]

溫故知新

桐里 申在孝선생의 ‘변강쇠 타령’

동리(桐里) 신재효(申在孝)는 판소리의 대본인 사설(辭說=타령) 여섯마당을 집대성해 서민대중의 서사시로 승화시킨 위대한 풍류가객이었다. 판소리는 놀이판의 광대소리에서 비롯되어 농악 민요 탈춤 등과 더불어 서민의 애환을 구성지게 엮은 전통 민속예술이다. 신재효가 집대성한 사설 여섯마당은 ‘춘향가’ ‘심청가’ ‘토별가’ ‘흥보가’ ‘적벽가’ ‘변강쇠가’ 등인데, 오늘날 판소리 대본의 권위 있는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 ‘변강쇠가’는 ‘변강쇠 타령’ ‘황부가’ ‘가루지기 타령’이라고도 하며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 여섯마당 중 가장 성적 표현이 노골적인 작품이며, 조선왕조 말기 서민들의 생활풍습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인 풍속도와도 같은 서민문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변강쇠가’를 소개하는 까닭은 근래 들어 급격히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고, 이에 따라 건전해야 마땅할 성(性)풍속 또한 너무나 난잡해진 듯해 미력이나마 경종을 울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수의 주부까지 유흥업소에 나가고, 성 상납이니 뭐니 하여 매매춘과 관련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형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나라 여대생

의 15%가 성병에 걸린 경험에 있다는 참으로 놀랍고 믿기 어려운 보도를 보았다. 15%가 성 경험이 있다고 해도 놀랄 일인데, 성병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노릇인가. 얄친 데 얄친격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성병에 걸린 여성의 비율이 2001년 17.6%에서 지난해에는 44.5%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니 그저 놀랄 따름이다.

신재효의 ‘변강쇠가’는 밑바닥 서민들의 애환을 그린 사설이니 만큼 도덕 군자들의 훈시와 같이 무미건조하고 고루한 내용은 결코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너무나 성적 표현이 노골적이다. ‘변강쇠가’는 이렇게 시작된다.

- “중년에 맹랑한 일이 있었던 것이었다. 평안도 월경촌에 계집 하나 있되, 얼굴로 볼작시면 춘 이월 반개도화 옥빈에 어리었고, 초승에 지는 달빛 아미 간에 비치었다. 앵도 순 고운 입은 빛난 당채 주홍필로 딱 들입다 꼭 짝은 듯, 세류같이 가는 허리 봄바람에 흐늘 흐늘...”

이처럼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바로 저 유명한 웅녀인데, 웅녀가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연구가

사내 잡아먹기를 밥 먹듯 하니, 마침내 황해도와 평안도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이 년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두 도내에 X 단놈 다시 없고, 여인국이 되겠다”면서 웅녀의 집을 부수고 타도로 쫓아버렸다. 웅녀가 쫓겨나면서 이렇게 악을 쓰는데, 그 소리 또한 걸작이다. “어허, 인심 흉악하다. 황·평 양서 아니면 살 데가 없겠느냐. 삼남 X은 더 좋다더라!”

이렇게 쫓겨난 웅녀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황해도 청석골에 이르렀는데, 마침 삼남에서 빌어먹다 황·평 양서로 올라가던 천하의 잡놈 변강쇠와 만나게 되었다. 천하의 웅녀와 잡놈이 만났으니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둘이 이내 눈이 맞아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산중에서 바로 일을 치르는데, 그 대목이 ‘변강쇠가’의 압권이다.

그렇게 부부가 된 강쇠와 웅녀는 각지로 돌아다니다가 지리산에 들어가 살기로 한다. 하지만 강쇠가 평생 일해 본 적이 없는 농민이라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는 웅녀의 배만 타니 둘 다 굶어 죽게 생겼는지라 웅녀가 나무라도 해오라고 시킨다. 강쇠는 엉뚱하게도 장승

을 베어와 장작처럼 패어 아궁이에 때고, 억울하게 죽은 장승귀신은 노랑진 대방장승에게 찾아가 원통함을 하소연한다. 결국 강쇠는 별폐처럼 달려든 팔도 장승들에게 비명즉사하고 만다. 웅녀가 강쇠의 초상을 치르려고 하나 부르는 사람마다 줄줄이 죽어서 나가자빠져 버린다. 그렇게 늘어난 시체가 무려 여섯 구. 결국 각설이패가 찾아와 시체들을 묻어주고 간다.

그 동안 많은 연구가가 ‘변강쇠가’가 음탕하고 난잡한 성 관계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풀이했지만, 이설도 있다. 즉, 인간의 성욕은 식욕과 더불어 하늘이 내린 천성이라는 사상, 부패무능한 조선왕조 말기의 어지러운 사회상, 그 속에서 간고하게 살아가는 천민들의 애환 등을 그렸다는 것이다.

판소리 사설 여섯마당을 집대성하고 수많은 명창을 길러낸 ‘판소리의 중흥조’ 신재효는 순조 12년(1812)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고을 아전을 하다가 은퇴하여 73세에 죽을 때까지 판소리 연구에 전념했으며, 고종 21년(1884) 음력 11월 6일 이 세상에 왔던 날과 똑같은 날에 세상을 떠났다.

전북 고창에 가면 고창읍성 모양성 앞에 그의 옛집인 동리정사와 동리노래비가 있고, 동리국악당도 세워져 동리 신재효의 예술혼을 이어가고 있다. [4]

박태환이 겪는 고통

오늘과 내일



고 두 현

- 본회 회우
- 전 서울신문 국장급 기자
- 월간 태권도 편집장

이라고 격찬했다. 후루하시의 2차대전 후 자유형의 세계 신기록을 여러 차례 갈아치운 스타였다. 그는 자신의 자유형 1,500m경기를 이렇게 돌이켰다.

“처음 500~600m는 아직 목에 힘이 있으니 까 입속으로 들어오는 물을 내뱉을 수 있지만 근육이 피로해지면 물은 목구멍 깊숙이 흘러 들어가버리고 만다. 그때 쯤부터는 위(胃)속의 모든 것을 토해내면서 헤엄쳐야 한다. 1,200m에 온 정력을 쏟

한다. “경기도중 경기를 포기하고 물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고 매우 힘이 들었다.” 북경올림픽 자유형 400m결승 전날밤 박태환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됐다. 1964년 도쿄올림픽 남자육상 100m의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밥 헤이즈는 언제나 베개 밑에 성경책을 넣어둔다.

“경기 전날 밤은 물론 잠을 못 잤다. 떨면서 깊은 밤에 몇차례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도드렸다. 자는 것보다 안자는 편이 훨씬 낫다. 만약 잠들었다면 무서운 꿈에 시달려 나는 밖으로 뛰어 나갔을 것이다.” 후루하시의 “잠 못 이루는 것이 나의 컨디션이다. 그 컨디션 밑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면서 조용히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박태환은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

미국 뉴욕 타임스의 스포츠 칼럼니스트 데이브 앤더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스포츠 라이터란 팬들이 가보지 못하는 스포츠의 세계에 안내하는 사람이다.” 중요 경기의 경과와 결과는 TV 등의 동영상을 통해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TV화면에 비치지 않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깊은 내면, 날카로운 경기분석 등을 쓸 수 있는 기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스 미디어는 말로만 기본 종목인 육상과 수영의 중요함을 부르짖지 말고 인기 프로 종목에만 치우치고 있는 제작방향에서 벗어나 기본 종목의 유능한 전문가 육성에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스포츠 면에서도 매스 미디어의 계도적 기능은 중요하다. [4]

내가 35년 동안의 스포츠기자 생활에서 취재한 한국 수영의 최정상은 두차례의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금 5개를 차지한 최윤희(여자배영)와 금 4개를 판조오련(남자자유형) 등 두 사람이었다. 따라서 올해 북경 올림픽에서 남자자유형 4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고 지난 10월의 전국 체전에서 3연속 수영 5관왕이 된 박태환을 취재할 수 있었던 후배기자들이 나는 무척 부러웠다.

그러나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 박태환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에 대해 폭 넓고 깊이 있는 기사가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은 안타깝지만 하다. 통상 세계 수준급의 수영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20km 이상의 훈련을 계속해서 그 훈련량의 총계가 지구를 한바퀴 도는 길이에 버금가는 40,000km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물속에서 외로이 치러야 하는 40,000km의 여정은 당연히 단조롭고 힘이 든다.

1970년대 초반 한국 여자자유형의 여왕이었던 최연숙은 “너무나 힘이 들 때는 울면서 해염했어요”라고 털어놓았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자유형 4관왕의 영예를 누린 미국의 돈 솔랜더는 은퇴한 뒤 그가 지은 <DEEP WATER>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 “정상급의 수영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고통과 마주치게 된다. 지구력의 한계에 접근하게 되면 고통은 서서히 나타난다. 먼저 배가 아프기 시작한다. 그리고 팔이 무거워지며 다리가 뻣뻣해진다. 특히 허벅지가 먼저 뻣뻣해지고 다음에 무릎이 뻣뻣해진다. 몸을 띄울 수가 없고 마

치 위에서 누가 물속으로 짓누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수영장의 물소리는 마구 뒤섞여 큰 파도소리처럼 들리고 물은 연분홍색으로 보인다. 고통 때문에 제몸 속에서 울려 나오는 비명을 듣게 된다. 경기도중 부딪치는 고통의 문턱에서 위대한 선수는 다른 선수와 구별된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고통을 피하는 반면 위대한 선수는 스스로를 고통 속에

영광뒤의 땀과 눈물 깊이있는 보도 안보여
기본종목 유능한 전문기자 빨리 육성해야

몰아넣는다. 고통과 대결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 고통의 저쪽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선수가 위대한 선수다.”

박태환이 북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자 일본 수영연맹 회장을 지낸 후루하시의 “박태환은 아시아의 자람”

고 나머지 300m는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상태에서 골에 흘러들어 간다.” 최연숙은 이렇게 돌이켰다. “경기는 어려운 고비에 이르면 도중에 포기하고 물 속에서 뛰어나오고 싶을만큼 힘들어요.” 1972년 뮌헨올림픽의 남자수영 7관왕인 미국의 마크 스피츠도 같은 이야기를



남연군 묘소에서 임한순 회우의 해설을 듣고 있다.



수덕사 앞에서 기념촬영.

78명 회우 즐거운 하루

본회 가을 야외 수련행사 성황

“인적 없는 수덕사에 밤은 깊은데
흐느끼는 여승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에 두고 온 님 잊을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적에
아~수덕사의 쇠북이 운다”

연합통신 외신국장을 역임했으며, 역사학을 전공한 임한순 회우가 수덕사에 얹힌 옛날 이야기를 감칠맛 나게 해주는 가운데 언급한 노랫말이다. 1966년 송춘희가 불러 히트한 ‘수덕사의 여승’이란 제목의 가사중 1절이다. 대한언론인회의 가을 문화탐방 여행에서 해설을 맡아준 임 회우가 이 노래의 사연 설명을 경청하던 조창화 회장을 향해 한번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운을 떼기도 했으나 아쉽게도 노래는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선 10월 10일 아침 8시 조금 지난 시각. 78명의 회우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프레스센터 앞을 떠나 충남 예산을 향하여 문화탐방 길에 올랐다.

3시간이 채 안걸려 첫 도착한 곳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가야산 자락의 남연군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李球의 묘이다. 버스에서 내려 10여분 완만한 산 기슭을 오르면서 보니 풍수 지리에 문외한이 보더라도 빙 둘러선 산줄기가 마치 병풍친 듯 싶은게 명당 중의 명당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산을 안쓰기도 그렇고 쓰기도 애매할 정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회우들은 묘 앞에 둘러서서 임한순 회우의 남연군묘 내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귀 기울여 들었다.

묘소탐방에 이어 온천장에 들러 샤워를 하고 같은 장소의 식당에서 뷔페로 점심을 했다. 나물이랑 모든 식재료가 현지 무공해 농산물이란 얘기에 모두들 입맛이 더 도는지 왕성한 식욕을 보여

주는 듯 했다.

점심 후 찾은 곳이 수덕사. 국보 49호인 대웅전은 1308년 고려말 공민왕 때 창건돼 올해로 700년. 절에 이르는 길에는 ‘수덕사 대웅전 창건 700년’을 기념하는 예불 안내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눈길을 끌었다. 창건 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진 목조건물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한다.

수덕여관은 수덕사로 들어가는 일주문 왼쪽 조금 위에 있었다. 절 경내에 이르기까지 여관이 안보여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모르고 지나쳐버린 걸 알아채고 부리나케 뒤돌아가 여관 이곳 저곳을 살펴봤다. 이곳은 세 여자, 세 남자의 기막힌 실화가 얹혀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세상이 알다시피 세 여자란 우리 나라 최초의 新詩 여류시인으로 노래 가사에 나오는 ‘수덕사의 여승’을 가리키는 일엽스님,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그리고 고암 이응로 화백의 조강지처인 박귀옥이고, 세 남자란 나혜석의 출가 소망을 끝내 받아주지 않은 만공스님, 수덕여관을 사들여 조강지처에게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프랑스 파리로 가 21살 아래 제자와 재혼한 이응로 화백, 일엽이 유학중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 김태신(일당스님)을 가리킨다.

문화탐방의 마지막 코스는 서산시 해미읍 읍내리 해미읍성이었다.

이번 가을 문화탐방은 모두 역사의 현장 탐방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데다 적어도 한 번은 꼭들러 보아야 할 곳이란 점에서 매우 소중한 기회였다. 온고 지신이라고나 할까, 옛날을 돌아보고 오늘을 새롭게 사는 지혜를 조금이라도 터득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역사 문화탐방이 어디 있겠나 싶은 하루였다.

崔 熙 助
(본회 편집위원 · 중부대 초빙교수)

TV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재미

“관객 여러분, 방금 들은 연주는 쓰레깅니다. 이젠 뭐 도저히 참아 줄 수 없네요. 저는 더 이상 브람스를 이따위 연주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를 하시고 특히 귀의 때를 뽀뽀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악단을 지휘한 지휘자가 자기 악단원들의 연주를 혹평하는 모습이다. 세계적인 지휘자 강마에(마에스트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이렇게 시청자에게 다가온다. 그의 말대로 “쓰레기, 카바레, 치매, 똥덩어리”들이 모여 소박한 꿈을 실현시켜가는 과정은 “개나 소나 다 나오는 줄리어드”같은 학벌 우선주의보다는 실력 우선을 그대로 증거한다. MBC 수목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모습이다.



신 대 군

· 본회 회우
· 전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갈 신선한 충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이다.

넷째, 드라마에도 철학이 있어야 한다. 불륜이나 출생의 비밀이 주를 이루는 요즘 드라마들은 작가

김수현의 표현대로 “중학생들의 습작 수준”인지도 모른다. 이 드라마엔 특정의 메시지가 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아무나 다 할 수 없는 메시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을 훌륭한 연주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강마에의 집념이 있다. 파업으로 위협하는 단원들에게 사과했다라면 강마에는 그 날로 “죽었을” 것이다. 권위가 무너진 요즘 세태에 눈여겨 볼 모습이다.

눈길을 끄는 어록 몇 가지를 되돌아보자. “니들은 내 악기야, 난 오케스트라 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고 니들은 그 부속품이라고...”(강마에), “버나드 쇼가 그랬지,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이순재), “젊고 잘생기고 착한 건우 말고요. 늙고 이기적이고 배배꼬인 미운 건우요”(강마에에게 사랑을 느낀 두루미), “구제불능, 민폐, 걸림돌,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난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 똥덩어리”(강마에) ... 이런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권위의식은 시청자들의 비판 대상이기도 하다. 초반의 리듬을 깨뜨리며 무리하게 이어지는 강마에와 두루미의 사랑이 오히려 극의 흐름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연출자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시청률이 오르면서 벌써 연장방 송애기가 나오고 있다. 연장이 능사인 가는 잘 판단해야 한다. 작가와 연출자, 연기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4]

건강강좌 갈수록 人氣

11월 15일 이윤수 비뇨기과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들의 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61세 이상 노인들의 성범죄는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성범죄자는 2002년 272명에서 2006년 598명으로 2.2배 이상 늘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역시 2002년 82명에서 2006년 155명으로 1.9배 늘었다.

이윤수 박사는 보통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 성욕이 감퇴되고 능력도 사실상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나 위 통계자료에서 드러나듯이 그러한 인식은 잘못됐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박사는 노인들의 성문제는 이제 양지로 드러내야 하며 그렇게 해야 범죄 증가율도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노인의 성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할 과제라며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들의 욕구와



김인철 박사의 지도로 최면 실습을 하고있는 회우들.

필요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월 건강강좌는 오는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지하철 2호선 외환은행 본점 맞은편에 있는 ‘이윤수 비뇨기과’에서 “사회문제로서 노인의 성문제”에 관해 열린다. 이에 관심 있는 대한언론인회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바란다. 이윤수 박사는 매달 우리 대한언론인회 회우들만을 위해 노인과 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4]

네팔의 히말라야지역 트래킹을 시작
한지 벌써 몇 년인지... 이제 내 체력으
로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갔다고 생
각하고 있었는데 '궁극의 트래킹 코스'
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재작년 파키스
탄의 K7지역에 갔을 때 우연히 만난 한
한국 산악인이 그곳에서 멀지 않은 K2
지역의 발토로빙하와 곤도고롤라를 넘
는 코스가 끝내준다는 것이다.

K2나 K7이 있는 지역은 파키스탄 북
부의 인도 접경지대로 입산절차가 까다
로운 것은 물론이고 접근하는 것부터
힘들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국내선
이나 버스로 일단 스카르두로 간 다음
4륜구동 지프차에 갈아타고 트래킹 시
작점인 아스콜리까지 가야 한다. 여기
까지 사흘이 걸린다. 그 다음부터는 숙
박시설이나 상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취사장비나 식품 등 모든 것을 가지고
가면서 야영을 해야 한다.

지난 8월 24일, 6명으로 구성된 우리
트래킹팀은 인천공항을 출발, 방콕에서
1박한 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다
음 날 입산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마친 뒤 국내선을 타려고 했으나 항상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결항이라 산사태
로 자주 길이 막히는 카라코람 하이웨
이를 달려 스카르두로 갔다. 아스콜리
(3,040m)로 가는 길도 산사태로 끊어
진 곳 때문에 예상외로 시간이 걸렸다.
폐차장에서 가져온 듯한 도요다 랜드크
루저는 한국에서 오프로드를 해보았다
는 대원도 처음 보았다고 했을 정도로
힘한 산로를 잘도 달렸다.

8월 29일, 우리는 트래킹을 시작했다.
야영장에는 우리밖에 없었다. 요즘 이
나라의 정정불안과 유가폭등 때문에 트
래커가 별로 없다고 한다. 우리 카라반
은 40명 가량의 대부대였다. 우리는 사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생각했
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강가를 따라 올라가는 첫 며칠 동안의
산길이 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초열지
옥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이 때문에 여
자대원 한 사람이 포기하고 하산했고,
다른 한 대원도 헬리콥터 후송을 요구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트래킹 시작 이틀째인 빠유(3,485m)
로 가는 날 오후, 나는 길을 잘못 들어
영똥한 곳으로 가고 있었다. 마주 오던
일단의 파키스탄 군인들이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땀별 아래

히말라야 궁극의 트래킹 코스



8월 2일 11명의 목숨을 앗아간 K2. 오른쪽 사면 중간 돌출부가 조난장소.



이 남 규

· 본회 회우
·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 험한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그
들은 기진맥진한 나를 보고 안쓰러웠던
지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빠유로 가는
길까지 데려다 주었다. 자기들 구역에
들어왔다고 동포 관광객을 쏘아죽인 군
인들과는 너무나 달랐다.

하루 10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무
거운 짐을 지고 가는 포터들도 모두 산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고 악수를 교
환했다. 파키스탄은 가난하긴 하지만



곤도고롤라(5,620m)정상. 오른쪽 끝이 필자.

우리 돈 1,000원이면 과일을 한 주머니
살 수 있고, 5,000원이면 양고기 2kg을
튀겨주는 나라다. 기본적인 의식주 면
에서는 우리보다 만족도가 더 높을지도
모른다.

빠유에서 우리는 뜻밖에 한국인을 만
났다. 가셔브룸II를 등반하려다가 기상
악화로 포기하고 돌아가던 전남대 등반

대가 우리 텐트를 보고 들른 것이다. 나
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 무렵 K2 일
대는 한국인 등반대가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다. 가셔브룸I에는 중앙고 100주년
기념 등반대, K2에는 경남산악연맹 등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포함된
국제등반대가 8월 1일과 2일에 걸쳐
K2에서 하산 도중 눈사태를 만나 11명

사진을 찾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0년간 언론인의 발자취가
담긴 **특별사진전시회<언론, 언론인 60년(가칭)>**을 개최해,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사건현장을 담은 보도사진은 물론 바로 언론인 여러분이
주인공인 사진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별전에 전시할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언론인이 찍힌 취재현장의 모습, 또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탁주
한 잔 기울이는 장면 등 언론인의 희로애락이 담긴 사진이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품을 드립니다.

■ **사진 보내주실 곳**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언론재단 12층
미디어진흥팀 (02-2001-7751, 7754)

■ **마감일** : 2008년 11월 10일

■ **사진을 보내주실 때는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연도, 장소, 사진 속
인물 이름, 사연 등)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전시회 일정** : 2008년 12월 15일 ~ 12월 22일
(전시장 : 한국프레스센터)

5,620m 곤도 고롤라를 넘다



구름을 길게 끌고 있는 무즈타그타워.



정상부가 넓은 브로드피크.

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도 3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K2는 높이가 8,611m로 에베레스트(8,848m)보다는 낮지만 난이도와 위험도는 훨씬 높아서 지금까지 오른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가 야영했던 우르두카스에는 K2와 그 일대 산에서 죽은 산악인이나 셰르퍼 및 포터들의 비명과 무덤을 볼 수 있었다.

8월 4일, 우리는 K2와 브로드피크, 초고리사 등 이름만 듣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는 콩코르디아(4,720m)에 도착했다. 대부분의 트래커들은 여기까지 와서 그런 명산을 감상하거나 베이스캠프를 다녀온 뒤 되돌아 내려간다. 그러나 궁극의 트래킹은 더 올라가 알리캠프(4,955m)를 거쳐 5,620m의 곤도고롤라를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콩코르디아에서 충분한 휴식

을 취한 다음 8월 7일 알리캠프로 향했다. 그동안 구름이 끼어 있던 K2와 브로드피크가 활짝 개어 흔치 않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이곳부터는 빙하 위를 걸어가야 한다. 너덜 길처럼 험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크레바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다. 기온이 오르자 빙하의 녹은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야영장은 빙하 한 쪽의 바위산에 마련되어 있었다. 돌을 쌓아 만든 화장실도 있었는데 빙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화장실이라고 할 만 했다. 이곳에는 이 지역 출신 구조대원들이 상주하면서 곤도고롤라를 넘어가는 트래커를 도와주고 있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출발 직전 안 사실이지만, 지난 2년 동안 정상 부근의 크레바스 때문에 폐쇄되었던 곤도고롤라가 이들의 노력으로 바로 며칠 전에야 다시 열렸다는 것이다.

8월 9일, 우리는 한 밤중에 일어나 출

발했다. 눈과 얼음이 녹기 전에 곤도고롤라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람이 없었고 춤지도 않아서 나는 가벼운 복장으로 온통 바위와 돌로 덮인 길을 헤드램프로 비추면서 내려가 다시 빙원 위에 올라섰다.

눈에 덮인 곤도고롤라는 내게는 거의 직벽처럼 보였다. 새로 만든 길은 인터넷에서 보았던 그런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용케 로프를 잡고 올라갔다. 나는 구조대원의 도움으로 하네스를 하고 주머를 사용하면서 올라갔다. 가이드는 아예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지 말고, 절대로 위를 올려다 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나는 그저 한 걸음 한걸음 발밑만 보면서 올라갔다.

얼마큼 올라갔을까. 머리를 들어보니 정상이었다. 10시쯤 된 것 같았다. 다른 대원들은 이미 그곳에 와있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었다. 나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몇 장 찍었다. 기온

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하산 길은 장난이 아니었다. 경사도 급했지만 모래와 너덜로 덮여 무척 위험했다. 그 밑은 얼음이었다. 로프가 깔려 있었지만 나는 몇 번이나 미끄러졌다. 바지가 찢어지고 다리와 엉덩이가 온통 찰과상이었다. 잘못하면 까마득한 계곡 아래로 추락할 수 있었다. 얼음이 녹으면서 돌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위험지역은 계속 나타났다. 야영지 후스광(4,500m)이 뵈히 보였지만 좀처럼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나는 한 대원의 도움으로 겨우 텐트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날 다른 사람들은 15시간 이내로 산행을 마쳤는데 나는 그보다 3시간은 더 걸렸던 것 같다.

스틱을 보니 첫 단이 휘고 축이 망가져 있었다. 멀쩡했던 등산화의 바닥에도 구멍이 나 있었다. 무릎이 부어올라 굽히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궁극의 트래킹코스를 넘었다. 지금까지 곤도고롤라를 넘은 연장자 기록은 84세라고 한다. 하지만 새 길로 넘은 사람 중에서는 72세인 내가 최연장자일지 모른다는 멧쩍은 생각도 했다. 실제로 이슬라마바드에 돌아가서 하산보고를 했을 때 알파인클럽 부회장이 그렇다고 확인했다.

우리는 사이초(3,500m)에서 마지막 야영을 한 다음 후세 마을(3,300m)로 가서 지프차에 짐을 실었다. 궁극의 트래킹이 끝난 것이다. 우리는 스카르두로 돌아가 남은 예비일을 이용하여 해발 4,000m 고원의 데오사이국립공원, 장수자의 마을 훈자, 중국으로 넘어가는 쿤자랍패스, 간다라 불교미술의 중심지 탁실라 등을 돌아본 다음 19일 밤 서울로 돌아왔다.

떠나는 날 아침 호텔에서 탄핵위기에 몰린 무사라프 대통령의 하야 연설을 텔레비전으로 보았다. 2005년에는 트래킹을 마치고 카트만두를 떠나는 날 국왕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며칠 동안 공항이 폐쇄되었던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별 관심사가 아닌 듯 조용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다. 너덜 길까지는 각오했지만 끔찍한 더위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그런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별 탈 없이 돌아왔다. 사람들의 능력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 같다.

나는 체력 면에서는 절대로 남보다 뛰어나지 않다. 그저 남보다 좀 더 참을 수 있고, 좀 더 천천히 갈 수 있을 뿐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힘든 모양이다. 고산지대의 트래킹은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실재율이 적다는 사실이 의학통계에도 나와 있다.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도 젊은 사람이거나 체력이 뛰어난 사람이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트래킹에도 위암절제수술을 한 나와 동년배의 사람이 있었다. 실패한 유일한 대원은 30대의 여성이었다.

사실 5,000m 정도의 히말라야 트래킹도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다. 네팔의 산(히말라야)은 파키스탄의 산(카라코람)보다 훨씬 수월하다. 3,000m까지는 일정만 잘 조정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포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국내 산행보다 쉽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엄두를 내는 것이다.☞



나의 힘은 산이다

발효과학 흑마늘의 힘

천년의 식물 산-

나의 힘은 산이다!

최민호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 흑마늘이란? 마늘을 일체의 첨가물 없이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자연숙성 발효하면 마늘 특유의 아린 맛이 없어지는 흑마늘이 됩니다
- 천년의 식물 산이란? '마늘'을 한자로 '산(蒜)'이라 하며, 국산마늘을 숙성 발효하여 먹기 편하게 만든 흑마늘 음료입니다

• 자세한 문의 및 제품 주문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 1577-3651 / www.yakult.co.kr • 아쿠르트 이종마가 신선한 제품을 가장과 직장으로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천년의식물 산蒜



박정진 회우 獨島詩碑전립

지난 9월 9일 울릉도 야외 독도 박물관에

중견 박정진 시인(전 세계일보 문화부장)의 '독도 시비'가 지난 9월 9일 오후 울릉도 독도박물관의 야외박물관에 건립되었다. '독도' 시비로는 국내 처음인 박 시인의 시비는 지난해 11월 울릉도와 독도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그동안 모금 및 제작 과정을 거쳐 이날 제막식을 가졌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건립된 이 독도 시비는 '독도 코리아 시사랑' (대표 김순영), '박정진 시를 사랑하는 모임' 등 기타 독지가와 여러 후원자의 모금을 통해 기금을 마련했다.

이 시비는 독도의 동 섬, 서

섬을 본 때 두 개의 시비에 시의 1절과 2절을 나누어 심는 방식으로 새겨졌다. 박 시인의 독도 시는 그동안 기존의 독도 시 가운데 가장 역사성과 정통성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낭송하기에도 적절하여 시낭송가들에 의해 자주 낭송되어 왔다. 특히 2006년 6월 17~18일 '독도 코리아 시사랑'에 의해 대표 시로 선정되어 독도에서 시낭송회를 가지기도 했다. 또 지난해 독도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식(2007년 8월 6~8일)에 초대되어 초대 시로 낭송되었다.

박 시인의 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중적인 어



법으로 쓰인 시가 아니라, 평소 독립과 자존하는 심정으로 독도를 은유하는 가운데 시간성에 있어서도 신라시대와 현대를 오가며 시공을 초월하고 있어서 평단에서도 주목을 받아 왔다. '독도' 시 구절 가운데 "넌 대륙의 마지막 정절/.../현화가의 옛 신선 예 살아 있구나

/.../석화산이로다/.../해동성인이로다" 등은 빼어난 표현으로 평가된다. 이 '독도' 시는 10년 전인 1998년 시전문 계간 <시와 사상>(가을 호)에 처음 소개되어 그동안 회자되어 왔다. 박 시인은 이 '독도' 시가 게재된 시집 <독도>(신세림, 12,000원)를 지난해 출간하여

초대 독도박물관장을 지낸 고(故) 이종학 선생에게 헌정한 바 있다.<독도>시집에는 대표 시 이외에도 '독섬' '독도독립문' '춧대바위' '황금독도' 등 독도를 주제로 한 시 15편을 실었다. 독도 전체가 아닌 독도의 섬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여러 편 노래한 시는 박 시인이 처음이다. 박 시인은 대구 출생으로 한양대 국문과를 나왔으며 박목월 선생에게 사사했고 늦깎이로 지난 92년 시전문지 월간<현대시>신인상으로 등단해 그동안<시를 파는 가게> <대모산>등 5권의 시집을 냈으며 1,000여 편의 시를 써왔다. 또 최근 한강을 소재로 135편의 시를 묶는 컬러 시집<한강교향시>(신세림, 20,000원) 출간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한국시인협회 회원이다. [www.kkci.or.kr]



· 가나다순

인체기증 지원본부 이사장



* 금창태 회우= 최근 신설된 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 지원본부 초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기구는 인체기증 상황실 운영을 비롯 인체조직 은행, 기증희망자 등록 관리 및 환자 진료비 지원 등을 위한 모든 홍보업무를 전담한다. 한편 금 회우는 지난 10월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양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녀 희수양의 결혼식을 가졌다.

여약사신문 대표이사 사장



* 김용발(여약사신문 부사장) 회우=지난 10월 1일자로 여약사신문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됨. 김 회우는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신문을 거쳐 주간 코스메틱 사장, 보건신문 사장을 역임했다.

선진화재단 세미나 주제 발표



* 남시옥(광화문 문화포럼 대표) 회우= 지난 10월 24일 서울 중구 필동 한반도 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보수를 말한다"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국 전통보수의 발전과 과제'를 발표. 남 회우는 "한국 보수세력은 19세기말 조선왕조시대 개화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이념이 해방후 미군정 당국에 의한 친미정권 수립

을 계기로 비로소 한반도에 도입됐다거나 오늘날 한국의 보수세력이 지킬 가치와 이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일부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광고 대상 수상



* 문청(광고대행사 베컴 회장) 회우=2008년 중앙일보 광고대상에서 200여개 광고 대행사 가운데 소바래 부문 최우수상을 획득하였다. 해당 작품은 신세계 상품권 광고 지도편.

비추미 여성 대상 수상



* 박동은(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회우=삼성공익재단이 제정한 제8회 비추미 여성대상 '해리상'을 수상했다. 박 회우는 개발도상국 여성과 어린이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펴왔다.

상금 3천만원. 시상식은 11월 14일 오후 3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공정언론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성병욱(세종대 석좌교수) 회우=지난 9월 30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정언론 시민연대' 창립 및 기념 포럼을 개최하고 공동대표로 선임.

평화언론포럼 토론회 개최



* 안중우(평화언론포럼 회장·본회이사)=지난 10월 25일 전남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시사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운종 시사문제연구소장(본회이사)이 주제 발표를 한 이날 토론회는 50여명이 참석.

▲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차단' 위험 진의 ▲ 북한의 급변 사태 경우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북한 인권·경제난 강연회



* 이경남(한국발전연구원장) 회우=지난 10월 24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姜哲煥 조선일보 기자(탈북자)를 연사로 초청해 '겪어본 북한 인권과 경제난의 실상'을 주제로 제 162회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시사만화의 이해' 특강



* 이홍우(전 동아일보 편집위원·화백) 회우= 지난 10월 10일 상명대 밀레니엄관에서 '시사만화의 이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잡지의 날 문화훈장 받아



* 임덕규(영문월간 디플로머시 회장) 회우=제43회 잡지의 날(11월 1일)을 맞아 정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받

았다. 임 회우는 1975년 8월 '디플로머시'를 창간한 이후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공동체 라디오 오픈캠프 개최



* 정용석(한국커뮤니티 라디오방송협의 회장) 회우= 지난 10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에 도입한지 만 3년이 되는 전국 8개 공동체 라디오의 미래를 전망하는 오픈 캠프를 개최.

운송물류인자선골프대회



* 한기호(운송신문 회장) 회우= 지난 10월 13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하늘코스'에서 '제 1회 운송·물류인자선골프대회'를 개최.

이번 대회는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비롯, 보관·하역·IT 등 물류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업계 관계자 등 144명(36팀)이 참가했다.

부동산 투자 특별 강연회



* 홍용수(NSI 자산관리연구회 회장) 회우= 지난 10월 13일 종로구 경운동 SK HUB 빌딩에서 "2008년 정부의 세제 개편안 종합분석"을 주제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와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 투자전략에 대해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바로 잡습니다

'大韓言論' 10월호(제271호) 15면 '수필 -窓에서 보는 강물'의 필자 '김종현'은 '김종현'으로 바로 잡습니다.

♣ 주소·전화 바뀌었습니다

- 김성진(金聖鎭) 회우=서울 마포구 아현동 738번지 마포트라펠리스 2차A. 1205호 우)121-010
- 조덕연(趙惠衍) 회우= 경기 화성군 동탄신도시 능동 숲속마을 자연데시앙A. 864동 702호 우)445-320
- 최병요(崔秉堯) 회우=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신미A. 라동 206호 우)150-055



朝友會 회보창간

조선일보 퇴직사우 모임인 조우회(회장 최준명)가 지난 10월 5일자로 회보 '朝友'를 창간하였다. 타블로이드 24면으로 발행된 이 회보에는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등 朝友들의 글과 활동상이 담겨있다.

- | | |
|--------------------|------------------------|
| 본 회
日誌
(10월) | • 10일= 역사 탐방 |
| | • 14일= 편집회의 |
| | • 20일= 제1차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 |

■ 회비 내신 회우

- 2008년분
금 창 태 (09년) 김 경 중 (09~11년) 김용발 김종현 (10년) 김천길(09년 포함) 남재희(09년) 박종서 오정수 이배영 임한순 황우권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철이 있어 도시도 사람도 더욱 깨끗해집니다

독일의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
그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곳의 중심엔 철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때로는 무공해 교통수단이 되어
우리의 도시를 더욱 맑고 푸르게 가꾸어 갑니다.



태양과 철이 만난 태양열주택



사람과 철이 만난 자전거



독일의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

오늘을 가꾸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